

작가의 서신

“그림 동화 위키키(Wikiki)를 만나게 될 부모님(혹은 보호자)에게 보냅니다.”



위키키에 표현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껏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위키키 동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짝 공개해드릴게요.

엄마, 아빠만 알고있는 소중한 이야기보따리로 아이들과 즐겁게 베키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 note from the creator and author of Wikiki

This note is intended for our children audiences to discover the true creativity in the deep-downs of their hearts while viewing the pictures in the story book with their parents. The author James Wolf believes that by sharing this behind-the-scene story only with parents, children will enjoy every moment of reading and expand their imagination beyond what was the limit.

Shall we meet our hero friend Beki?

James Wolf, from New York.



빙고의 비밀

빙고는 남극 위키키 마을에 사는 갈매기예요. 어린 시절, 플라스틱 병에 날개가 붙어버려 날지 못한다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항상 펭키 곁에서 펭키의 행동을 따라하던 빙고는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베키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빙고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블랙키의 비밀

블랙키는 북극곰 베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강한 흑곰이에요. 베키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먹을 때 마다, 꿈속에 나타나서 베키에게 말을 해주는 친구예요. 포키섬 모험 때, 베키가 선물로 받은 위키키를 작동시키면 나타나 베키를 구해준답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 좋아요!

아이와 함께 페이지마다 숨어있는 **아마존 래키**를 찾아보세요. ‘월리를 찾아라!’ 처럼요.

01 혼자 다니는 친구나 소심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배려심을 말해 주세요.

02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똑같아요. 피부색, 장애의 선입견을 없애 주세요.

03 친구들의 물건에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심을 부리지 않는 아이로 키워 주세요.

04 모험은 친구와 함께 하며, 서로를 지켜줄 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협동심을 말해 주세요.

위키키 두번째 이야기

‘호흡 영웅의 탄생’

Beki, Born to the breath Hero

포키섬으로 모험을 떠난 펭키와 베키일행, 남극의 빙하로 배를 만들어 출발했지만 포키섬으로 가는 길은 멀고 또 멀었어요. 따뜻한 바닷길을 가다보니 배는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작아져서 결국 펭키의 배는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펭키의 어깨 너머로 얼음 위키키를 만드는 법을 배웠던 베키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펭키, 지금부터 내가 위키키로 포키섬까지 달려볼게!” 수영을 잘하는 베키는 커다란 몸을 이용해 친구를 등에 태운 채 위키키를 물속으로 넣었어요. ‘휘잉~휘잉~’ 위키키가 돌아가자 바다속 친구들이 모두 놀라 펭키 일행을 쳐다보았어요. 힘센 베키와 신기한 위키키 덕분에 펭키일행은 무사히 포키섬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털썩, ‘아이고 힘들다~’ 베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해변에 주저앉았어요.

펭키는 베키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고마워 베키. 그런데 너도 배에 있었던 거니?”

털에 묻은 모래를 털고 일어나며 북극곰 베키는 시무룩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응, 널 따라 왔어. 위키키는 정말 신기하구나.” 해가 저물고 저녁이 찾아오자 펭키 일행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베키는 장작을 구해왔고, 펭키는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죠. ‘후우, 후우.’ 펭키가 위키키로 바람을 불자, 불이 커지며 주위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펭키와 빙고는 베키가 가져온 장작 덕분에 춥지않은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힘센 베키에게 장작을 가져오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베키는 펭키의 위키키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위키키가 있었으면 좋겠어.’

펭키일행이 도착한 포키섬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있었지만, 그들에게 남극의 황제 펭귄과 북극곰은 낯선 외부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펭키, 베키, 빙고는 서로를 지켜주는 친구가 되어야 했어요. 늘 함께 다녀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해야 했죠. 그러던 와중에도 베키는 펭키가 가진 위키키가 탐나기 시작했어요. 포키섬에서도 위키키훈련을 계속하는 펭키를 보며, 베키는 포키섬의 나무로 위키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베키는 펭키의 위키키를 빼앗을 궁리를 했죠. 나뭇가지로 펭키를 아프게 하거나, 응가중인 펭키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는 등 펭키를 괴롭힐 방법은 무궁무진했어요.

포키섬의 신비한 무지개 꼬리 원숭이를 찾아 헤매던 어느날, 친구들은 모두 피곤해 잠들었어요. 늦게까지 깨어있던 베키는 펭키의 목에 걸린 위키키를 바라 보았어요. ‘펭키가 잘 때, 몰래 위키키를 훔쳐야겠어!’ 바로 그때, 베키 앞에 ‘블랙키’라는 이름의 흑곰 한 마리가 등장했어요. 블랙키는 펭키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이제 펭키를 괴롭히는일은 그만해!’ 베키는 놀랐지만,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블랙키에게 말했어요. “위키키로 날 이긴다면 그만 뒤 줄게.”

둘은 위키키로 대결을 시작했어요. ‘후우~~’ ‘푸푸푸푸~’ ‘후우~팡팡~’

호흡 대결은 블랙키의 승리로 끝났어요. “베키, 친구의 물건을 탐내는 건 좋지 않아.” 블랙키가 말했어요. 그러자 베키도 잘못을 뉘우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랙키는 웃음을 보이며 말했어요. “베키, 넌 누구보다 강한 북극의 곰이야. 친구를 보호해 줘야지.” 베키는 밝은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래, 지금부터 펭키와 빙고를 보호할게. 고마워.”

블랙키가 베키에게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베키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 꿈이었구나.’ 손에 쥐고있는 위키키를 보며 베키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펭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친구가 되어볼까..?’ 베키의 마음을 눈치챈는지 빙고도 기뻐하는 소리를 냈어요. ‘끼룩~끼룩~’

그 소리에 펭키가 뒤를 돌아보며 베키의 어깨를 툭, 치고 말했어요.

“베키! 가자~”

